古今奇歌 全

錄

병슐오월이십일ㄹ뎌니문동

Carpentier

오륜가 뎨일

어와셰상사람드라 텬디음양오힝이로
이내말삼드러보소 온갓만물삼겨나셔
만물즁의귀ᄒᆞᆫ거슨 ᄉᆞ람의제듄ᄒᆞᆫ거슨
사람이오륜이라 오륜밧게ᄯᅩ잇ᄂᆞᆫ가
오륜을알작시면 츙효친ᄒᆞ자ᄒᆞ면
츙효가웃듬이니 어려온일아니로쇠
ᄉᆞ군진명위츙은 효도ᄂᆞᆫ실ᄒᆞᆫ거시
공친갈력위효ᄒᆞ며 ᄉᆞ군ᄉᆞ친다ᄒᆞᆯ손가
효ᄌᆞ가효ᄒᆞ신나니 츙신불ᄉᆞ이군은
효신가효효ᄌᆞᄒᆞ네 효ᄌᆞ부효ᄒᆞᆫ뇌야ᄒᆞᆯ손가

부뫼가든 어버셩은 나와흉셩 뵈올나라
효야 올부되야 사니 부모효양 흘여쥐와
자식나와 부모되면 자식나와 길너보면
자식나와 자식두니 부모은혜 거어알니
한쳬통상 흉ᄒᆞ면말고 서옹거졍 둉ᄌᆞ되면
부ᄉᆞ형쳬 갸산ᄒᆞᆯ쇄 자식거졍 몬ᄒᆞ나니
밥는ᄒᆞᆫ술 숨기거든 옷는ᄒᆞᆫ가지 숨기거든
자식몬쳐 먹어고재 자식몬쳐 닙히고재
취위더위 다가르며 쳔ᄒᆞᆫ만ᄒᆞᆫ 길너낼졔
밤잇ᄂᆞᆫ 손ᄉᆞ향ᄒᆞᆫ쎄 고생이 잇거더ᄒᆞ던고
이만ᄒᆞᆫ 은ᄃᆞ구ᄒᆞ쳐쇄 너의부모 너길을졔
부모은혜 아라쇄라 고와망쳐 ᄒᆞᆫ엣ᄂᆞ니

텬디갓튼부모은공 빅년을효양ᄒᆞᆫ들
태산갓치놉허스니 다엇지갑흘소냐
신에구노무궁ᄒᆞ고 무지미물가마귀도
양아신고그지업다 반포봉ᄒᆞᆫ다커든
허물며ᄉᆞ람이야 미겁이빈궁커든
엇지효양못ᄒᆞᆯ소냐 ᄌᆞ미롭양못ᄒᆞᆫ다마
하날갓튼부모뜻을 부모효셩위마소
어긔오지마라셰라 어의부모의위ᄒᆞᆫ때
현의삭풍원망마소 ᄌᆞ상ᄒᆞᆫ신부모ᄒᆞᆫ계
어의현이불목ᄒᆞ되 인ᄌᆞᄒᆞ신부모은젼
한셔돌잇ᄉᆞ오며 일년의열두달과
한열인둘거늘손가 하로도열두시요

날마다 공경ᄒᆞ며 ᄌᆞ나ᄭᆡ나 부모공양
셰마다 효양ᄒᆞ소 치위더위 부모공양
졍셩에 지극ᄒᆞ면 어룬공괴 니어나고
텬신이 감동ᄒᆞ리 눈속의 죽슌나니
텬신감동 아니시면 효로ᄡᅩᆺ든 신셩대효
인력으로 어들소냐 유슌ᄡᅩᆺ든 셰월이라
인간칠십 드믈거든 진시황 한무졔도
즁싱불ᄉᆞ 뉘잇ᄉᆞᆯ가 여산무릉 고혼이라
만일의 효양못ᄒᆞ다가 망극히 셜운졍을
덧업시 니별ᄒᆞ면 ᄒᆞᆫ이된들 니즐손가
뉘알ᄋᆞᆯᄉᆞ 져ᄉᆞ람들 남은연광 짐작ᄒᆞ고
부모빅년 ᄉᆡᆼ존이라 위친효양 못ᄒᆞᆯ가

하로아참 불효ᄒᆞ면 인간전니 날너무삼
압가친쳑 다슬물졔 외다로미 무궁ᄒᆞ리
싱전효양 못ᄒᆞ되는 헐ᄂᆡ보ᄂᆞ ᄂᆞ자
뎐디간의 다생인듯 다모리의 틈ᄒᆞ든
ᄌᆞ무ᄉᆞ 업서거든 요멍길이 달다거든
효ᄌᆞ부모 ᄉᆞ라오미 가선부모 도라올가
젹막ᄒᆞ 삼간ᄒᆞ면 온갓졔물 버려노코
즈다가서 셜이로다 잡삽는양 모ᄅᆞᄒᆞ면
신지백사 빙연ᄒᆞ다 싱시효양 못ᄒᆞᆫ셜음
온졸간졸 어이알니 알ᄉᆞ록 셔로왜라
셔로다는 ᄆᆡᆯ진고미 여름지은 ᄉᆡ쌀밥을
우리부모 드리고져 우리부모 드리고져

뵈고지고 부모얼골 춘삼월 화류시의
듯고지고 부모말솜 눈물이 뭇치 졋고
츄구월 단풍들제 춘쇼 신다서 잡아
슬픈 간장 다 녹는다 삼춘 비ᄋᆞᆫ 갑ᄌᆞ쇼를
부모엄시 뉘게 혈가 졀무신 졔쇼년들
외다로 미무ᄒᆞᄂᆡ 이니말솜 잇지말고
부모님은 ᄒᆞ라커든 형졔들의 논ᄒᆞ면
싱젼효양 힘써ᄒᆞ쇼 한 부모의 혈육이라
얼골은 다르다마 부모님 길너날제
각〻마음 벽지마쇼 한갈갓치 사랑ᄒᆞ사
한그릇서 밥 먹이며 한벽의 한이불의
한의복을 ᄂᆡ고입혀 의징업시 길너니니

셰상텬디 ᄉᆡᆼᄒᆞᆫᄉᆞ람 왼셰상을 다단니든
부모버금 형졔로다 우리형졔 ᄯᅥ잇스며
쳔만인을 모화신들 텬륜을 ᄭᅢ닥ᄒᆞ면
ᄀᆞᆺᄐᆞᆫ ᄌᆞ괴 뉘잇슬가 각별ᄉᆞ람 ᄒᆞ쟌만은
어이우리 금세ᄉᆞ람 물욕의 눈어두어
형졔불목 ᄌᆞ심ᄒᆞ고 인의를 비반ᄒᆞ고
쳐ᄌᆞ의 리ᄉᆞ약ᄒᆞ여 아ᄋᆞ업고 형업ᄉᆞ면
동기를 별니ᄒᆞ니 너몸의 날기업니
날기업는 쉬를보소 젼박ᄒᆞ고 ᄀᆞᆫ단ᄒᆞᆫ제
어듸가 의탁헐가 형졔업는 ᄉᆞ람이라
가디젼답 조타ᄒᆞ되 노비총첩 조타ᄒᆞ되
갑슬주면 살거시요 돈을주면 살년마는

텬하지물다드린들 총ᄒᆞ고ᄌᆞ랑ᄒᆞ네
형졔조ᄎᆞ어들손가 이밧게업셔스니
한말곡식한ᄌᆞ뵈를 밥한그릇술한잔을
형졔어이못난효네 형졔어이못난홀가
어려온일의치ᄭᅩ 즐거온일혼ᄌᆞᄭᅩ
형의일니일이라 아오일이뉘일인가
쳔년져원할께셔도 형이만일위굴ᄒᆞ면
형졔즉난일너시니 졔의ᄆᆞ음엇더ᄒᆞ네
졔가만일위굴ᄒᆞ면 형의무귀어더가며
형의ᄆᆞ음엇더헐가 졔가몬져무귀ᄒᆞ면
형이몬져무귀ᄒᆞ면 간안유예셰지말고
쳐외무귀어더갈가 형졔의를아라셰라

네것니것 주지말고 한부모의 골육이라
동긔지졍 살뢰세라 한ᄆᆡ물의 ᄌᆞ라나니
어ᄃᆡ간들 ᄯᅥ세ᄇᆞᆯ가 오륜의 근본이라
경ᄒᆞ후박 엄산모비 부〻도ᄒᆞᆯ 혈시고
부〻업시 부모니며 효졔ᄒᆞᆫ신 일ᄂᆞᆫ고
부〻업시 형졔날가 녜의염치 알ᄂᆞ니
혼인예를 마련헐졔 이ᄉᆞ지친 셔로만나
불평이무 ᄒᆞ런ᄒᆞ니 빅년히로 ᄒᆞᆫᄌᆞ헐졔
연본은 삼셩이요 부모명을 조츤비필
연약은 금셕이라 션인예로 마ᄌᆞᆫ벼필
ᄒᆞᆷ현ᄒᆞᆫ 현령이요 금슬ᄀᆞᆺ치 ᄉᆞ랑ᄒᆞ며
위헐ᄒᆞᆫ ᄌᆞᄒᆞᆫ이라 ᄒᆞᆷ고ᄀᆞᆺ치 즐게세라

쳥녹강진경이도 현디젼긔스쟝으로
웅비ᄌᆞ운쟝낙귀든 무찬무수모롬츙니
부ᄌᆞ유별극진ᄒᆞ면 가난유여세재말고
가업셩쥐졀노되리 인도를아라셰리
붕우도흘타ᄒᆞ믄 오륜을아는벗지
오륜의드러시니 고금의벗ᄉᆞ되리
관쇽이와포쇽이는 유ᄌᆞ후와뉴우셕은
빈부를맛치ᄒᆞ고 졍비일을장환ᄒᆞ고
노의와진쇽이는 범식과장원빅은
젼진이교칠맛고 ᄉᆞ싱을연약ᄒᆞ니
맛는결살퇴고공경ᄒᆞ니 왼셰상의다ᄎᆞᄌᆞ도
이아니군ᄌᆞ신가 이런벗ᄉᆞ업스려든

어이우러금세ᄉᆞ람 탓쌀발을상구ᄒᆞ면
고디지별시ᄒᆞᆫ고 딕산이갑의얏고
일비ᄎᆞᆺ를장분ᄒᆞ면 부귀까문빠도ᄒᆞᆫ고
하히가엿더시내 권세가문의도ᄒᆞᆫ고
낫ᄂᆞ치고칠이요 황금이ᄒᆞᆺ허지면
빨아다형제갓다 교칠이만디업고
권세가부쳐지면 노상힝인션ᄭᅴ다ᄒᆞᆫ들
형제도허세로다 이의셔더션ᄭᅴ오매
효월이번다ᄒᆞᆫ들 이야번을술혀마오
이의셔더혈혼마 이아난벗지여진벗이내
친ᄒᆞᆫ벗을ᄌᆞ화마오 예전벗은귀쳔업고
친ᄒᆞᆫ벗치간ᄉᆞᄒᆞᆫ벗이내 간ᄉᆞᄒᆞᆫ벗은변복업니

빈뫼지쳔다비리고
밧아논벗을아라셰라
보ᄂᆞᆫᄉᆞ람듯ᄂᆞᆫᄉᆞ람
명심불망ᄒᆞ여셰라
글못ᄒᆞ여셰러마오
이아내ᄒᆞᆨ문인가
인친형장불분ᄒᆞ면
금슈와다를손가
셰상ᄉᆞ람이글을보와
부ᄃᆡ〻〻명심ᄒᆞ라

이노릐물민ᄒᆞ나
오륜힝실다드러니
가문힝실빗도나고
남도아니뫼워ᄒᆞ리
슬푸다셰상ᄉᆞ람
오륜힝실불명ᄒᆞ매
오륜뫼ᄂᆞᆫ츙효가옷듬
힝실의ᄂᆞᆫ례가ᄋᆞ뜸이라

류몽셜맛끗

秋風感別曲 二

어제밤 부든바람 고칠만곰의 ―
금성이 완연ᄒᆞ단ᅵ 장ᄉᆞ몽ᄒᆞᆫ 채셰에
寒窓을 반기ᄒᆞ고 만니잠罷의 ―
믹ᄒᆡ 안즈보니 하운이 ᄒᆞ더지고
천변강산의 ― 심ᄉᆞ로 창연ᄒᆞ되
찬리운이 세고돼라 물색도 유광ᄒᆞ다
정寒의 무ᄂᆞᆫ바람 취夢의 맛친마술
너한을 알외ᄂᆞᆫ듯 뻘누름 ᄭᆡ우ᄂᆞᆫ듯
잔유낙고의 오월동연의
春일이 고리ᄒᆞ고 春원이 슐픠운다
임여 회고 쎽는간장 春풍의 졸기던일
하마ᄒᆞ면 쓴츠리라ᅵ 어졔가 새ᄉᆡ러니

셰우고 찬요격ᄒᆞ드되 야월삼경 사어시의
흉ᄒᆞ히 깁흔 졍ᄭᅵ 빅년ᄌᆞᄌᆞ 구든 언약
단봉이 놉고ᄂᆞᆫ 문어졀ᄒᆞᆯ 외외에ᄂᆞᆫ
픠ᄭᅩᆺ가 깁고 깁허 ᄲᅥ어질ᄒᆞᆫ 에이 ᄯᅡᆯ네
낭신이가 ᄭᅡᆫᄒᆞᆫ 몸은 지리 민하ᄂᆞᆫ
네 몸 붓ᄒᆡ 잇거ᄭᅡᄂᆞᆫ 조물의 ᄭᅴ새로다
묘연이ᄂᆞᆫ 흉풍 운봉고졉이
하흉을 요동ᄒᆞ디 이연이 흔단 ᄯᅡᆯ기
진왕의 압흘 흉ᄒᆞ구 금능의 감인임무
도젹혈 길 바 ᄃᆡ업고 다시 회풍에 ᄃᆡ하라
지쳑동셔 천니되에 운한 작교 엇쳐지며
바라보기 묘연ᄒᆞ고 편지 말길 이득ᄒᆞ다

운현이 셜쳐지면 아리ᄯᅡ온 조션여동
츄리티 잇치거나 이목의 미안잇셔
몃보ᄋᆡ 변미되고 텬ᄌᆞ만한 가득ᄒᆞᆫᄯᅢ
못니져원 쥬고ᄯᅡ 샹ᄉᆡ 뢰는 곳이 오ᄂᆞ나
허물ᄯᅢᄯᅢ는 ᄌᆞ즉흠 눈쌉히 오는 빗계서
니회들 보ᄉᆞ쥐비니 젼해ᄀᆞᆯ 번ᄋᆞᆷ이라
바람의 진는 입ᄯᅡ 무섬이 변ᄒᆞ게 되면
풀속의 우는 김ᄉᆡ 판계ᄒᆞᆫ 비엽 ᄯᅥᆺ나는
유ᄌᆞ별한 간졀ᄒᆞᆫ되 구름의 맛츤 셔름
쇼리ᄉᆞ 쥬셩이라 엇지ᄒᆞ여 풀쳐ᄂᆞᆯ고
아회야 술부어라 잔ᄯᅡ 맛치ᄆᆞ 득부어
화쳐ᄯᅡ 잔뢰 헐가 취토록 ᄆᆡᆨ온ᄒᆞᆫ 후의

그린산사 지래현듯
옥면인가 반겨더니
어와어인 일고
초물의다 시로다
홍지문 명하현을
기리울허 비최ᄒᆞ네
금홍을 다시열고
낙엽을 쓰러안즈
져른잔식 긴ᄒᆞᆫ숨의
발을밀어 나러니뫼
부용을 색거쥐고
유정이 도라보니
대이ᄒᆞᆫ 수구름에
랑명은 가리왓노
선제나 구름거더
밝은빗(달) 다시불고
한노서풍의
취ᄒᆞᆫ숨이 다셔거다
월비〻 목일비의
봉농이 취ᄒᆞᆫ여세라
지향업시 가는길의
이연단드 단빨기
옥변의 퓌는쏫츤
임이날을 반기는듯

엽간의 듯는비는 양〃비나구는
너ᄉᆞ젹샬의는듯 홍노변의왕녀ᄒᆞ고
쌍〃ᄒᆞᆫ원앙은 신션의번화ᄒᆞᆫ미
녹슈의부침ᄒᆞᆫ다 미물만도못ᄒᆞ도다
홀연이다셜치고 산이야구름이야
빅ᄉᆞ의쳐를젹여 쳔쳐렴셰가ᄌᆞᄒᆞ니
너ᄞᆞ이현환ᄒᆞ여 쳐회한식ᄒᆞ고
갈밀이야듯〃ᄒᆞ다 홀ᄃᆡ로다려가니
간곳마다뵈는물색 울밋해뒤는환욕
이되도록삼반ᄒᆞ다 담안의지는단풍
일간한의보게되면 담〃ᄒᆞᆫ심사등〃ᄒᆞ혀
넌지금다ᄒᆞᆫ태비와 울〃ᄒᆞᆫ슈한이라

무졍셰월 여류ᄒᆞ여 가뇌는 쳘은 못ᄎᆞ
나날이 깁허가니 구츄의 느져간다
샹ᄉᆞ리 우는 실솔을 지는 달 셰는 밤의
네 우는 무ᄉᆞᆷ 나를 뮈여 잠시도 안니 쉬고
긴소리 져른 소리 젹은 듯 남은 간장
경〻이 셕거 우러 에이ᄭᅳ다 셕이노
졸제가 져러우니 샹풍의 봄만 홍안
밤드자 못미러고나 운쇼의 홀노 셔셔
용〻ᄒᆞᆫ 긴소리로 츈풍화월 너불다리
쳑을 불너 올리우니 두번 셜도 늣메거든
오동츄야 쟝〻시의 네 벼룩 미물이나
잠이 엇지 드ᄅᆞᆯ쇼냐 사졍은 날다 맛다

일폭화젼지외 월명사창뇨젹ᄒᆞᆫ듸
셰〻사졍그려다가 임계신데젼ᄒᆞ면은
인비목셕어니 자리뎐이니ᄲᅳᆯ어
임도응당반기리라 싱각사록ᄭᅳ치업다
인연업셔못보는가 인연이업셔시면
유졍ᄒᆞ여그리는가 유졍인들여이ᄒᆞ리
유졍ᄒᆞ미업셔시면 인연도업지안고
그려진들여이ᄒᆞ리 유졍도ᄒᆞᆫ뎐마는
한셩즁의한데잇셔 오직병월발근셰라
여이그리못보는고 로산은유젼젹의
셜진심사무한사는 무진쟝회방양ᄒᆞ여
환연ᄒᆞᆫ실음이로다。 문을열고바라보니

무심한 구름은 우러임게 선물을
슬쳐다가 다시 잇네 져구름은 알연마는
오며가며 두사이의 양쳐가 막막한데
무삼 약속 가졋관데 소식조차 돈졀한말가
돌데 업는 이내 슈회 벽상의 걸인 거문고는
어디가 지졀할고 강상한여 나려노코
봉구황한 곡조를 여음이 요요하여
한심 셕거 미리하니 원한는 듯 한한는 듯
상여의 녯 곡조를 탁문군의 말근 지음
히연이 잇거니와 힘이 자최 업다
상사의 곡조는 졀연한데 별이
날위한 셔지어는가 늣길일도 만구한다

창회월연두운은 심홍회산결사는
님의꿈의빗취것만 나혼자션이로다
맛두워셤만혼데 잘서는미술자자
히는어이쉬이깐고 무리々々노라들고
야삭은잠당혼데 명々이혼근는밧혼
면남이회게혼고 철찻는밧뒤불이로다
결박혼빈방안의 지빈일들쳐혜고
올연이혼자산자 오는서름생각혼니
산밧과산이잇고 바라도록미러잇다
불밧괴물이로다 구이산구름밧긔
장々혼긴々밤의 이모혼혹잠들드러
이리혼여여이혼리 꿈의나보려혼네

원앙침 서러치고 호월졍유의
비취금 닝박ᄒᆞ다 상이 그기 어려왜라
한번잔쵹 벗슬삼다 안ᄌᆞ다가 누어다가
젼ᄃᆞ불미 잠못드러 어서곰이 려안자
이리혜고 저리혜니 천약영서 벽달의
아마도 원수로다 오면인 춘셰당기다
고진감내는 별련이 감흥ᄒᆞ고
그누이 혜여내가는 귀신이 도우의ᄒᆞ여
남교풍셰 물노 쵸상에 뇌달의
월노승ᄃᆞ시시에 고인을 다시만나
봄바람가는 쪽의 이련일 넉시발삼아
게울맛치 ᄆᆞ초아는 젼회춘네 허드고

유ᄌᆞ삼녀ᄒᆞᆫ에 안심이 곱ᄉᆞᄒᆞᆫ에
가업시 즐기더니 어니 뉘시비 ᄭᆡ드ᄂᆞ
춘풍오호 져무는 날의 가ᄃᆞ가ᄃᆞ 모뒤ᄃᆞ
범ᄇᆞᆯ을 놉히 ᄃᆞᆯ고 산호고물 조흔뒤
지ᄌᆞ오향으로 셕젼을 밥히 ᄭᆞᆯᄃᆞ
ᄎᆞᆫ만ᄒᆞ옥 재여두고 호셕을 ᄇᆡᆨ을망졔
빅면이 ᄃᆞᄃᆞ진 ᄃᆞ록 샹ᄉᆞ고곤ᄒᆞᆫ 몸이
ᄃᆞ시 이별 엇고져고 샹우허 빗ᄭᆡ 더니
죽은 듯 ᄌᆞᆷ을 드뤼 그리든 우리 님은
호졉이 되ᄂᆞᆫ 보ᄃᆞ 장원의 열꼿 ᄡᅥᄃᆞ
비희고 졉ᄒᆞᆫ에 뉘집 옥등 ᄯᅩᄃᆞ리
별니ᄉᆞ졀ᄃᆞ 못ᄒᆞᆫ에 ᄎᆞᆫ방쳔ᄌᆞᆫ 소릐로

잠드는날을 셰오느냐 ᄒᆞ구실이나
두어잔이 관유ᄒᆞᄂᆞ니 다시불가ᄒᆞ도다

초한가 楚韓歌 三

졔

초현이 요활현되 호월은 조취ᄒᆞ여
호풍이 소슬ᄒᆞ다 벽공의 별너는듯
한순산 장ᄌᆞ방은 계명산 츄야월에
일쳑단져 손의쥐고 내향가 한곡조를
월하의 슬피부니 옥반을 셰치는듯
산호계 즐놉히드러 힘운이 ᄇᆡ무는듯
산학이 느나는듯 강동의 팔쳔졔ᄌᆞ
빅면을 좃치는듯 고향을 싱각ᄒᆞ더니

호가한 소리의 슈참ᄒᆞ여 ᄭᆡᆷ드니
일시의 이산ᄒᆞ니 장졸의 잠든 귀와
긔안니 가련ᄒᆞ다 우미인은 목찌고
칼집고 일어안져 슈죡우ᄒᆞᆯ 나면셔
우혜ㅣ ᄂᆞ여 망극다니 별이ᄯᆡ
니네ᄅᆞᆯ 어이ᄒᆞ리 이ᄂᆞ별을 어이ᄒᆞ리
역발산 긔개세로 이ᄂᆡ가 련ᄒᆞᆫ ᄯᆡ
일시의 줄절ᄒᆞ니 우미인 쳔필ᄒᆞ외
옥안을 연셕ᄒᆞ고 단쟝을 반기ᄒᆞ고
슈루ᄅᆞᆯ ᄒᆞ를니면셔 호치ᄅᆞᆯ 브러니에
병시로 소회ᄅᆞᆯ 펴니 한번이ᄂᆞ 참ᄒᆞᆫ가
기시의 말ᄊᆞ리뇌 사면의 초가셩을

장군의ᄀᆞ리젼ᄒᆞ니 우리기를피ᄒᆞᄂᆞᆫ구의
쳔쳡이하ᄆᆞ심가 옥배를다시드려
희ᄉᆡᆼ을위로ᄒᆞ되 요쳡을열어ᄲᅡᆯ고
장군아〻〻 살기만ᄒᆞ모ᄒᆞ요
장군이ᄆᆞᄋᆞᆷ을ᄯᅵ면 옥음을셜룬ᄒᆞ되
요쳡이ᄲᅥ로리라 장검을ᄲᅡ혀들고
장우를도라보니 살기는충쳔ᄒᆞ되
검광이셔리ᄀᆞᆺ고 풍ᄭᅡᆫ한ᄒᆞᆯ듯이
ᄯᅡᆯ디기를져혹ᄒᆞ니 다시곰한심지고
니별을어이ᄒᆞ리 오호미칩더ᄒᆞ고
미인을도라보니 옥ᄀᆞᆺ튼목을로쳐
검광이번ᄃᆞᆺᄒᆞ며 션혈이소사나니

향혼이 날니것다 어ᄃᆡ가 다시보리
어엿본 우미인을 불승분한ᄒᆞ여
금편을 놉히드러 동면을 ᄶᅩ치는 듯
긔쥴을 호령ᄒᆞ여 셔면을 엄살ᄒᆞ니
남면을 흉도ᄒᆞ고 한면을 게우어더
북면션혈을 헷쳐 음능품은 길노
창황이 닷는 패라 고음ᄒᆞᆫ 늙은 놈의
홍문고회 시의 항장의 큰칼 ᄎᆞᆷ의
편변이 위티터니 번쾌 셰져 장사는
항백도 ᄃᆡ무ᄒᆞ고 ᄃᆡ상의 ᄯᅱ여오니
치ᄌᆞ를 ᄆᆡ신 후의 돗희다리 버히면셔
보검을 빗겨들고 긴말ᄉᆞᆷ 셜어 널제

쇠이알노도망호네
배리셴범이보는
불쪽모련하고라
흉쳔히굴근에
범종의빨드럿더면
이단을빤날호냐
방동이비록적으나
쇼한쪽히왕되오니
한번울드라보네
쳡〻히잣혀온다
번진의도라오니
일신이피밧치라

옥두를셰〻치므루
츳회라소곳왓는
고향의도라가니
이달다향왕네여
오강의다〻르니
뎡장이배의이다려는 이말
항왕은곱도망하소셔
빨혀잡고빨베니려
항왕이볼노호네
렴하의삼티되고
항왕이쉬잔제는
하발은아여려〻

쟝염을 쎄혀올고 이는 뎐디 망이요

허희탄식 ᄒᆞ되 비젼지 쳐야그라

은뎌이 듣판천ᄒᆞ에 자문나 사현거서

미동을 볼너셰고 괴아니 셤겨오나

어즈버 쳔니 놈미와 몹니 ᄉᆞᆯ혀오고

졀디이 인쳔ᄒᆞᆫ 졀도을 빳참니 였이오라

사우곡 思友曲 四

삼간모옥 젹막ᄒᆞ되 셰한월 빅 밤은 후의

일편시문 닷ᄃᆞ두고 두견셩 혼혼 자안ᄌᆞ

칠현오금 빗기안고 산쟝옥연 미ᄒᆞᆫ 면디

쳔니고인 셩악ᄒᆞᆫ니 산졀어침 며옥셜ᄂᆡ

변ᄒᆞ야허ᄂᆞᆯ과ᄒᆞ며 쳥산삼봉아득ᄒᆞ네
존ᄒᆞ는문연졔혈고 빅ᄒᆞ상사과지엽다
오동ᄒᆞᄂᆞ잠쎈ᄒᆞ와 이회별한뫼맛ᄒᆞ며
호엽ᄒᆞ흥히긴젹뫼 단장소혼ᄉᆡᆼ션내고나
인ᄉᆡᆼ빅년미완듸 약ᄒᆞ흐연맛나보니
막지동셔그리는고 젹료진졍ᄒᆞ고지고
환경ᄒᆞ두토이ᄯᅩᆺ살리
내별업게삼가소셔

관동별곡

關東別曲 五

강호의병이드러 관동팔빅니을
쥭님의누어더니 방면을맛지시니

어와 셩은이야ㅣ 가지록 망극허다
연츄문 드리ᄃᆞ라 경회남문 바라보니
하직고 물너셔니 옥졀이 압희셔다
평구역마 가라고 흑슈로 도라드니
셤강은 어듸메뇨 치약이 여긔로다
쇼양강 나린물이 어듸로 드간말가
고신거국에 빅발도 하도헐샤
동쥬밤 겨유셔에 북관졍 올나가니
삼악산 졔일봉을 하미ᄒᆞᆫ면 보리로다
궁왕ᄃᆡ궐터에 오작이 지져괸다
쳔고흥망을 아ᄂᆞᆫᄃᆞᆺ 모ᄅᆞᄂᆞᆫᄃᆞᆺ
회양 옛일홈이 맛쵸와 갓ᄐᆞᆯ시고

즁장유의 풍쳐를 광풍이 무시ᄒᆞ고
다시이어 불너서요 삼월이 사졀인데
화천세 너밀의 힐랑을 다연회고
풍악이 뻐러셰라 여편의 마듸짐고
비쳔동 펏쳐두고 온갓ᄎᆞ 무지게와
쌍폭동도 쏘앗거니 옥맛든 봉의호귀
셧돌며 생ᄂᆞᆫ호리 드물졔 ᄂᆞ구레려니
심너외 걍ᄋᆞ시니 보미 ᄂᆞ는이로다
금강대 민ᄂᆞᆫ 곳촌의 훙풍옥 저건의
선학이 생기쳐니 쳥잠을 쉬얏든지
호의 현상의 서호에 옷인을
반공의 소ᄅᆞ스니 반며 비렴노는 듯

초향노던 향노를　청한산진 혈디의
눈니리 주버보니　못쳐올나 안즌발니
여산진면 목을　어와조화 웅이
여기와 보리로다　천산도험 도혈사
날거든 쉬지마라　부용을 꼿는듯
섯거든 홋지마라　비옥을 뭇거는듯
둥연을 벗쳐는듯　니즐산 망고디와
목국을 려와는듯　봅흥혈 망봉디
한날의 차비러서　천만첩 지나도록
무삼말숨 살고려고　굽힐졸 모르는고
어와 너예잇고　기심디 못쳐올나
너갓트니 사이는가　춍향셩 바라보니

만이쳔봉을
역〻히 혜리로다
밝거든 조치마라
조거든 밝지마라
현용도 과거업다
취셰도 혈도혈사
이졔와 보계되네
유젼도 유젼헐사
동산과 티산이
어듸가 놉단말고
너럽고 너럽은 텬하
어이ᄒᆞ여 젹단말고

봉마다 밋쳐잇고
쏫마다 셔려괴온
져리온듯 허녀여
인걸을 만들고졔
텬디삼이 실졔
ᄌᆞ연이 되엿던만
비로봉 상〻두의
올나보니 괴네신고
고국대 좁은줄은
우리는 모로더든
여와졔 텬위를
어이 변불거시요

오르지 못ᄒᆞ거니
나려오미 고이ᄒᆞ랴
그사리 너른바회
회룡소 되여세라
폭야로 흘너니여
층희의 이어시니
음이의 이운폴들
다살혀 니여세라
안문저 너머드러
불뎡ᄃᆡ 올나가니
은한슈 한구뷔를
흘ᄂᆞ이 신혀니며

원숭이골 가ᄂᆞᆫ길노
사자봉 ᄎᆞᄌᆞ가니
쳔년 노룡이
구뷔〃〃 셔려잇고
풍운을 언제어더
삼일비를 거더는고
나한뎐 묘길상을
외나무 져근다리로
쳔심졀벽을
반공의 셰워두고
실갓치 물쳐닌데
베갓치 거러시니

동변 열두구뷔
너보며 는여러헐가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말 못ᄒᆞ리라
낭비로 환보ᄒᆞ녀
산영누 올나가니
졀리를 열치ᄂᆞᆫ듯
나변을 원ᄒᆞᄂᆞᆫ듯
희운을 거두ᄂᆞᆫ듯
명사십니 길의
희당화로 드러가니
벽구야 나지마라

내젹션 이여기와셔
곳처의 논ᄒᆞ게되면
산흥을 미당보랴
동히로 가쟈셰라
영농벽계와
슈셩제조ᄂᆞᆫ
고악을 졋보니
오식이 넘노ᄂᆞᆫ듯
취션을 빗기시러
바다흘 졋히두고
희벗진 조흔에이 발니
금난굴로 드러

홍셔젼 올나가니 다만네히 셔잇고
빅옥누 남은기동 녯쟝인의 경영인가
귀뷔로다 드ᄂᆞᆫ문가 무어슬 됴샹ᄒᆞᆫ고
굿ᄒᆞᆫ데 예셧면은 놉흔셩츄 만볼고
삼일포 드러가니 사션은 어듸간고
간셔는 묘션ᄒᆞᆫ데 예가핫로 무은흔의
仙어듸가며 물조차 쳔안젼 반편데뫼
션유담 영낭호와 떠피나가잇는가
엇못디다 머믈은고 졀동셰 슐피올제
이한ᄂᆞᆫ 빨셔재고 낙산동 반으로
의상ᄃᆡ 올나가니 밤즁만의 니러나니
일출을 보려ᄒᆞᆫ고 상운이 지피ᄂᆞᆫ듯

옥봉이 밧드는듯 반공이 떠러더니
바다희 떠날제는 층텬의 솟쓰더니
모발을 혜리로다 견쳐희 배무도다
아마도 열구름이 신선은 어데가고
바다물 반마는고 자세도 자세한다
텬디외 박은괴별 사양현산에
쳑촉은 물희밝히 평포희 그나려가네
우리지 존네 십니방 환올로나례
장졸은 울릇흔 곳의 물결도 졸도졸스
술과장 펴져시니 모리를 혜리로다
고즉희 랍흔여 강문교 너른곳의
졔조우희 올나가니 디양이 저더로다

풍용흔이리샹다
활맹흔져경기야
풍진고사고를
허사다흔리로다
졀효련문에
풀ᄀᆞ이베려셔네
진충관충셔무의
삼쳑의오셤쳔금을
찰한로한팡의나
목막의나다히리라
유희도험도헐사
각츄로도로더엽다

이도곳다운되가
任어디잇단말가
망늠은뒤도회가
풍뉴도흐흘시고
비유가봉이
이졔도멋잇헐사
뒤비산고람즈를
동희로담아가니
한는길은한이업고
풍경은무궁흔가
션찬을셔녀너에
신션은못죽리라

두우고로 향ᄒᆞᆫ 잘ᄂᆞ
단혈노 메무를 ᄀᆞ
바다 밧근 하ᄂᆞᆯ이요
하ᄂᆞᆯ 밧근 무어신고
불어니 샹대니
어즈러이 구는지고
오월 장텬의
ᄇᆡᆨ운은 무ᄉᆞ 일고
부상지쳑의
명월이 돗ᄯᆞ니
ᄭᅩᆺ졍을 못쳐 것고
옥계를 다시 ᄡᅳ러

텬근을 못내 보아
망양졍 올ᄂᆞ가니
ᄀᆞᆺ득의 뫼현 곳의
고니라셔 놀니관ᄃᆡ
은산을 ᄭᅥᆨ거 니여
육합의 날니는 듯
져근덧 밤이드러
풍낭이 졍ᄒᆞ거늘
셔랑 쳔장의
뵈는 듯 숨는 듯
ᄯᅦ빙션 듯도 ᄒᆞ구
못쳐 안져 바라보니

빅연화 한가지를
뉘게셔 보내든고
유화초가 드몸에
달다려 뭇는말이
아모나 맛나 보인
예사괴 별모곳흔네
올셔리를 드득베고
누어셔 호졈드니
그디를 니모고라
샹제의 신션이라
인간의 흔량흔네
우리를 잇고는가

이조흔 세계를
남디되다 뵈고져
영웅은 어디가고
시련은 고뇌련고
쳐산동희의
팔만도 법도별사
용의한ᄉ람이 엇던
발다려 벼를 말이
황졈뱅 한줄기를
엇지흔여 고곳내리고
져은덧 가지말고
이출한간 빅여보소

북두칠셩 기운후의 져잠고 날빗이기
둥히물 부어니예 삼ᄉ비 어흐거네
쳥풍은 숩ᄒᆞ예 구받니 잔골의
양만을 쇄혀드니 져게변 날니고ᄃ
이쳐한 산가져다가 역만산을
시희의 고을ᄂᆞᆫ 혼 ᄃ 추계 맥진후의
그져야 못쳐만니 발니의 무지게 ᄯᆞᆫ
소한잔 줄가러야 구름의 올나가니
공룡의 욕져소리 ᄃ 는잠을 ᄭᅢ에
어쳐런가 고쳐런가 바다흘 구비보니
깁흐믈 모로거든 기러니 ᄯ 업시네
가혓는 어이알니 되야나 ᄯ여 의가리

아희야 잔씨셔 도라가 주공의 산소와
이츌가 등꼬무어라 모다 취케ᄒᆞ리라

역대가 歷代歌 六

텬디현황ᄉᆞᆷ긴후의 만물이 초ᄉᆡᆼᄒᆞ고
일월연쳐되여셰라 산쳔이 기쟉ᄒᆞ니
골운산졔일봉은 산지웅흘너비려
산악지조홈이라 텬하구족되여셰라
쳔봉이진집ᄒᆞᆫ듸 향쳔이호ᄂᆞ허여
묵족을ᄆᆡ야논듸 세계를덥허셰라
벽히를반ᄃᆞᄒᆞᆫ듸 빅쳔이동유ᄒᆞᆫ여
육합을ᄂᆞ눌너논듸 동히로조홈이라

틔산의 올나안자
즁화를 바라보니
텬하를 젹다ᄒᆞᆫ 말삼
공부ᄌᆞ의 디관이요
텬문을 바라보고
디리를 구버보니
텬디산이 쳔용이요
험악산이 빅호로다
환회츅양 조강은
긔쳔이 되여잇고
환학누 악양누는
구평쳐 되여세라

낙양 텬하졍의
명승지 되여세라
노국시 졀ᄒᆞᆫ졍은
우리ᄂᆞᆫ 모로노라
현산은 츅작이요
한산은 현무로다
진시황 빨니련은
반이를 삼아두고
초샹강 동졍호는
지양을 ᄉᆞᆷ아두고
남면은 용편부요
북편은 쳔편부라

오초는 동남이요 졔로는 산동이요
연진은 서북이라 진위는 풍국이라
동서 양경이라 남북 삼도의
촉보는 어듸 가고 한보는 안듸 업고
오초는 언제 ᄉᆞᆯ고 오계 문물은
촉강은 어듸 간고 남가 일몽이라
육조 번화ᄒᆞᆫ는 비룡이 운흥ᄒᆞ고
쟝신의 호졉이라 호원이 멸렬이라
환화 촉다시 ᄇᆞᆰ아 요순의 귀산이요
션인이 ᄂᆡ 졔서 ᄂᆡ 우탕의 ᄃᆡ턱이라
면쟝 양젼은 연운ᄒᆞ 졀은
쳔년의 구름 ᄇᆞᆺ도ᄃᆞᆺ 흉산의 안기 ᄯᅬᆺ듯

산하을 일람ᄒᆞ고
사회고젹을 살피니
국호는 ᄃᆡ명이요
건원은 홍무로다
션피일월이요
옥촉의 건곤이라
션현대 ᄇᆡ후현대의
억만년지 무궁이라
백두산이 쥬산이요
할나산이 안산이라
현대기략시의
벽계를 너여지네

남편의 도읍ᄒᆞ고
티평을 알위더니
시화셰풍ᄒᆞ니
국티민안이라
셩ᄌᆞ신손이
계계승승ᄒᆞ네
곤륜산 일지ᄆᆡ이
조션이 되야서네
두만강이 쳥룡이요
압녹강이 백호로다
대세도 조커니와
풍경도 괴지럽다

예악문물은 팔도강산을
조종훈되여셔라 역〻히 혜여보니
함경도 셕왕산은 평안도 묘향산은
용흥강이 흘너잇고 대동강이 흘너잇고
경긔도 삼각산은 강원도 금강산은
임진강 둘너잇고 소양강 둘너잇고
경상도 태백산은 충청도 속리산은
낙동강 둘너잇고 백마강 둘너잇고
졀나도 지리산은 황히도 구월산은
셤강이 둘너잇고 졔류강 둘너잇고
우류의 빅이셔〻 삼조션 칠국시에
상고터 신맥훈니 인군이 고뷔신고

국만젹시졀의는 부왕되국호는
단군의조션이요 긔즈의조션이라
호한이섯돌제는 승나진삼한국은
위만의조션이라 흥망이즈취엽고
고주려빅졔국은 일쳔년신나국은
사젹만나니잇고 산하만의주호고
오빅젼고주려국은 텬샹이유혜호고
쳔파만빅여잇고 화훅이유졍호라
금셰신군이 오제롱산이요
왕리를타가지고 일각진연이라
도읍은한양이요 텬왕산이쥬산이요
국호는조션이라 종남산이안산이라

왕십산이 청룡이요
발이현이 백호로다
피산대라 든니
뎐무금영이라
요지일월이요
슌지건곤이라
금지옥엽의
만세지지장춘이라
긔남자나 단발가
그아희상을 보니
한세 년물은
피왕보뢰오리라

한강이 조슈되고
동작이 슈구막아
명신양장이
티평을 도왓니며
연이 방통의
가지마다 꼿치퓌고
장안팔만가의
졔실복덕가라
열굴은 관옥이요
풍치는 두목이라
한샹매여 거름ᄒᆞ며
보리진풍ᄒᆞ고

두살 먹어 말을 ᄒᆞᆫ네
세살 먹어 글 ᄇᆡ호네
쇼진장의 구변이요
사광의 춍명이요
네살 먹어 인사ᄒᆞᆫ네
쳔ᄌᆞ가합 빅연구를
효졔츙신 예의염치
오셰의 외와두고
동몽션습을
통감사략 초학셰계
육셰의 외와두고
칠셰의 외와두고
사셔삼경 졔ᄌᆞ빅가
치경도 ᄒᆞ려니와
팔셰의 외와두고
의술인들 ᄇᆡ회말가
젼집의 ᄉᆞ집이며
풍요망음 세요
니빅의 두시로다
유향세 셜환이라
이쵸명 고문진보와
권ᄀᆞ이 비화내며
사미편담 화령을
ᄌᆞᄌᆞ이 외와내여

츈풍 소젹은 야단 번들은
흥흥에 배려 잇고 양쳔에 의근 늣에
자라 요혜는 봉된 아둠을
귀쳐에 뫼셔 두곳 계회 뫼셔 잇든 곳
옥쳔 쳬가도 명죽 칠월 현은
쾌우에 매러 두곳 동졉을 숨어 두고
편안 칠현은 졀신이 뇌탁 듣고
불우 풍파 만나 불쟝이 발화 둣고
오로 불외 필이오 필낙 경쥬 우오
숨상 작년 회 미쳥 음위 신이 잇고
불한 우울 졉종 숨고 학현에 면을 하고
한풍 우울 달 숨고 승쟝에 도둣 모르나

한셰시졀은
동츈졀에 와방이라
츌당비얄 쳥시에
창원을 빨바더니
셔책을 품에 품고
예원에 들어가니
히제을 셩학흔에
명지을 펴노코
왕희지에 필법을
조밍보에 쳬을바라
끈치는 글원이는
쳬격은 숑욱이라

장원제슐은
백낙쳔을 과악구나
왕셰가 죽위ᄒᆞᆫ니
틔평과 니깃거늘
글제을 쳐되시되
강구에 문동요라
용연에 먹을 갈고
강엉에 붓슬 들러
실필 휘지ᄒᆞ니
문불가졈이라
등고지봉은
명한ᄉᆞ자 흥미라

학혜 봉란은 홍건에 봉용이요
한퇴지의 어라ᄒᆞ고 호동파에 부졔ᄒᆞ고
일편에 셜경ᄒᆞ니 홍불죡젹은
강구을 두어 보고 광졔의 졔면ᄒᆞ고
월궁에 홍ᄉᆞ 올나 호석은 임혼곳에
안졔올 썩거쥐고 탕한쳔 ᄒᆞ엿시니
쳔평에 쥬에 퇴졀에 영웅ᄒᆞ니
쳐일에 맛쳐 ᄒᆞ엿고 조현에 버려 잇고
엽황에 쌍룡ᄒᆞ니 쳔운을 ᄉᆞ면ᄒᆞ고
쳥산에 향흘ᄒᆞ고 육졔을 바쳐시니
비파에는 어슨 화ᄅᆞᆯ 좌쵹에는 홍휘ᄅᆞᆯ
붕에는 쳔츈이오 우측에 옥뎍이오 훌

곤의 화불이
옥잔을 밧시 들고
여족을 만취 ᄒᆞ고
청여에 맛기 안고
복숭 친경에
시절은 춘월되고
세초 나여 선발되고
홍진 건덕의
작일 건퇴는
공장주지 간풍이고
춘일 유관의
유스도 둘도 해체

청산 흥에 월세
청봉이 우여든든
장안비 노상의
이리 가던 적되야
노류장화는
못드여 불여는데
감체한 흥의
부르 다여 선퇴든
춘일 부안은
나판 부지 풍우를
춘은에 불안 ᄒᆞ고
변신을 체옥 ᄒᆞ니

효셩시ᄒᆞᆯ님쥬셔 혼문ᄒᆞ고ᄅᆡ쥬찬
저맙사헌음랑 사은무지평강령
변ᄒᆞ젼ᄇᆞᆫ니ᄒᆞᆫ잔광 무슈ᄌᆞ우슈지요
경연의능지당상 ᄯᅡ슌지도슌지라
너직도ᄒᆞᆫ려니와 쥬원무사고만ᄒᆞ고
외임인들바ᄅᆞᆯ말가 동녀무사도라안가
견쥬무운의쥬무운 기셩유쥬만ᄒᆞᆫ유쥬
졀나판관도졔ᄒᆞ고 관쥬유쥬사관ᄒᆞ고
무련을그만ᄒᆞ고 더신의초계ᄉᆞᆷ희
반빅을바라더니 ᄯᅡ쳔ᄒᆞ여효쳔감사
셔울ᄒᆞᆫ에셩상감사 물망으로졀나감사
더욱만나망원감사 자은으로횡명감사

가션으로편안감사
흙근만나황희감사
퇴로를바라더니
션은을못다갑하
디사ᄒᆞᆫ뒤제학을
옥당샹사다지니고
우찬셩좌찬셩시며
좌의졍영의졍이라
병판을다지내니
원훈이ᄋᆞ가회로다
일디부셩은
한간의션침이라

슌풍ᄒᆞ야평괴감사
팔도를다지난후의
내직으로도라드러
디사간디사셩의
니호예병형공뫼
한셩부판윤이라
판부사영부사며
봉조하취잔세라
빅년상사는
호리관음이요
풍간디맥노흥고
반삭이표박ᄒᆞᆫ니

챵두백발이
다시졈기어렵도다
훈풍의지는쏫츤
명년외다시피고
혁여갓든편대외
부유갓튼인생이라
인간을하직하고
북망산쳔도라들제
염가한소리의
귀이내술피울니
송죽로울을하고
백양으로졍자삼아

자식을싱각하니
구비내맛기오나
왕손은방초들。
해마다푸르거든
초로갓치스러지면
어나년의도라오리
만경이엽희서니
하늘에쳐량하다
공산의허를닥고
사흘로길을지너
현관을밀혀닷고
명문을잠아서니

호옥자근곳의
빅골이진토로다
흉한는만발한고
두견이슬피울졔
동풍벽오졀의
계혼이졔를쳔둘
향한일벽호를
백는출엇지알니
만사를관위한의
허션출알니로다
의돈의황곰도
노상의진의로다

인셕이엽셔시니
넉진들따나오랴
비흥은호슬한고
두견이지져리니
신년이즈회엽셔
무논출모로게든
에화가소롬다
출안후면허셔로다
셕혼의무지리좌뵤 라도
출드면무은이요
호셩약사는
녜무더니로더니

옥덕홍유빗옷고 음흉션나티빗도
사라셔옥둥이요 죽은후면고혼이라
우산의지는히는 옥문곤찬소리의
졔경공이울엇고 항장군도울엇거든
불노초벽에시면 단구셜젹홍도
션계의가련나는 어디가잇스며
안긔싱여동빈은 삼신산가쟈허니
눌다려닐을소냐 약수삼쳘니되
옥경을바라보니 진시황한무졔도
장안이구만니라 불사약못어더셔
여산무릉되의 만승텬자라도
황졔무덤되여시니 죽엄을못면커든

황어일긔 셔산이야
더욱가소롭도다
두어라 요양환계의
백학이 되오리라

운림쳐사가 雲林處士歌 七

텬디현황 삼긴후의
일월영쳬 되여셰라
삼승갈포 몸의걸고
구졀죽장 손의쥐고
져ᄃᆞ총안 다든곳라
요ᄃᆞ은학 긔촌다
별유텬디 곳으로셔
산인森목 푸르럿다

셰샨유벽ᄒᆞ여시니
운림쳐사 되여셰라
쳥니연월 좁은길의
망혜완보 드러가니
연긔무릉 ᄎᆞᄌᆞ셔고
긔산영슈 이엇던가
창의벽풍 부러는듸
백운관ᄆᆞᆯ니 되여셰라

강호어부 ᄭᆡ치되여
죽간사립 들너메고
일위편범 놉히달고
만경창파 흘니져어
일락청강 졈은날의
박주포져 도라오니
연변소록 삼은곳의
쳔사만조 느려졋다
츈긔동도 벗을삼아
반환괴거 비라보니
은담모산 너일흔고
란유보죽 오날흔세

백우모디 ᄂᆞ려가네
빅구비개 셜미로다
죽쳔은어 낙가닉네
은강노어 비일노다
남곡어촌 두세집이
낙하모연 잠겨세라
추공탁조 느럿가
운연옥젹 쉬는고야
월출한운 찬하긔
죽휘스을 실물삼아
초져샨미 졈심ᄒᆞ고
셕조망어 젼역ᄒᆞ세

셔의담박니즐기니
부귀공명니몰니라
계변셕침도ᄃᆞ베고
송뢰한번잠을드러
셔림ᄌᆞ규슬피울어
취몽미자도ᄃᆞ는듯
원학미록벗슬삼아
만학쳔봉오내가내
부운부귀셩각ᄒᆞ면
장싱의호졉이라
이내세상바린몸이
망산풍경함게늙어지

단셔화ᄌᆞ두셰병을
일비ᄅᆞᄅᆞ시맥고
셔창낙월밝은달의
송현단가셰ᄅᆞ드니
두장무한니러나니
실흔풍편괴지엄다
셕경창티막혀시니
진셰쇼식쓴쳐졋다
형션모옥빗겨시니
쇼허유젹쇼ᄎᆞ티라

거산쳥흥가

居山清興歌 八

인간이 요쇄커늘
세사를 쓰러치고
산이야 구름이야
쳘너발너 드러가니
가지록 서롭고나
칭암 졀벽의
나를 볼교 유졍ᄒᆞ니
구름 흐늙은 봄이
벽파 유름 뒤쳐는 듯
현의 흐르느고

홍진 망셕여 나져
젼쳐 업는 이 뇌몸이
쳔회 벽계와
만쳡 운산도는
구뷸 늙은 장송은
쳥풍의 흔들거워
여의 츔을 엿느라고
구뷔를 반만 녀여
구름 속의 연하로
누엄 흔희는

츈풍의 꼰별잇고　안되마다
호걸의 교티여위　구십쇼ᄌᆞ랑ᄒᆞ니
은임만경의　무궁세월은
즐게소씨리 재업다　물흐르듯ᄒᆞ는구나
산촌의 드려오니　에와즐겁고나
니벗지 뉘잇스되　이게서 셰디민고
쳔풍명월은　달ᄇᆞᆰ은 청쳔지
갑슬쥬다 ᄉᆞ랴마는　간디마다 꼿이는가
녯사람에 글말에　연득재다ᄒᆞ니
태백쳐인 어떠면　셰개한쳐ᄅᆞ은
이곳지야 혈디로다　금일이야 셔다ᄆᆡ다
발려못ᄒᆞᆫ 풍월을　이황은 몰한ᄒᆞᆫ고

장비를 가득ᄒᆞ고 목너여 말게ᄒᆞ고
송흥룡의 산유적을 이제야 허러펴가
이ᄋᆡ 내를 거오라 실간호 목을
니몸을 제ᄒᆞ리라 삼혈의 열거미며
우름 뎜허 더져두고 빅운은 기호도다
쳔산은 시벽이요 돌솟 흰밥을 지근
단외의 쥐지ᄒᆞ니 이디도록 쳔호혈사
산호우ᄒᆞᆫ시 이리와 한가켜든
역편지 면이로다 삼혈의 버려셔도
히비록 저호협셔 공전 디외ᄂᆡ야
현미어이 ᄀᆞᆯ ᄒᆞ냐 예유의 물이들고
어엿분 선간드름 옥선의 흠 쥐ᄒᆞ여

세다고리 젼혀업다 빅년반치 곳쳐ᄒᆞ고
한양갑지 팔양ᄋᆞᆯ 오화약지 룡변을
산희깃치 그혜ᄒᆡ여 불ᄉᆡᆼ치 뭔ᄭᅩᆺ ᄒᆞᄂᆡ
홍진디회로의 몸빙도 못ᄂᆡ고
열회의 다지대다 ᄉᆞ젹자지 엄젼에라
약비다지 박등이요 세샹롱명 몰위ᄒᆞᆫ라
ᄊᆞᆼ깃틀 연션들에 뫼깃치 싸힌져물
눈깃치 흘어지고 구름깃치 허여지네
못된ᄒᆡ 박드회 우쳔의 회롬ᄒᆞᄂᆡ
졔되야 나라나고 폐견조종 다흑네
뫼귀영화ᄅᆞᆯ 샹희의 눈더두어
무를못이 젼혀업것 불ᄉᆡᆼ친 ᄌᆞ손 ᄆᆞᆯ나본가

꽃버슨어린아희 꼭뒤빈쳔도
양지젓만너젓더니 각욕뎐명이라
포의가니몸이면 삭뇌약색을
금의를생각ᄒᆞ랴 삼긴디로지나가면
졔뉘라셔 고은옷조흔음식
사배의결별혼고 너몸의염슨보배
욕심을내오우래고 물욕지념나는졔
홍진화셩의 무지를사를방가
삼다이젼의는 현장양라드례
연졔편왕라 노흐로졀시미자
편한를다자랏고 인심이흐ᄒᆞᄒᆞ고
가국이무사ᄒᆞ매 편한가뎌혈ᄒᆞ예

졔가치국ᄒᆞ올뎐
무위이화ᄒᆞᆫ다
현뎨가명낭ᄒᆞ고
일월이광화ᄒᆞ니
의식의외풍족ᄒᆞ고
젼예ᄂᆞᆼ민드리
암ᄌᆞ무족ᄒᆞᆫ데
졔론졔ᄒᆞᄂᆞᆫ고나
삼뎌이ᄒᆞᆨ뫼ᄂᆞᆫ
ᄂᆞᆼ군양ᄌᆞᆨ잇
시여시변ᄒᆞᆫ고
이풍역속ᄒᆞᆫ데 속

현무열풍ᄒᆞ고
희물양파ᄒᆞ야
우순풍조ᄒᆞᄂᆞ니
쳐ᄌᆞ의민셩드리
함포고복ᄒᆞᆫ데
격양가부ᄅᆞ면셔
양지깃희누어잇셔
션ᄂᆞᆫ니혹모르데니
난젼젹ᄌᆞᆫ드리
셔묘이에ᄂᆞ려나셔
시치셜풍ᄒᆞᆫ니
셩쇠ᄒᆞᆷ만이

효득모실ᄒᆞ니 젼쥬이되단말가
티평텬디가 복희씨셔께짓고
챵힐이작자ᄒᆞᆫ네 삼황오졔들
인륜디되에 일시외가지네
노ᄒᆞ로민든젼人 왕화가몃만ᄒᆞᆫ에
문묵으로긔록ᄒᆞᆫ네 찰〻헌다시헌가
요졔일월은 츈지건곤은
어듸가고ᄆᆡᆼ셰는고 네와엇지달나는고
고도직졀은 뭇은이폐쳑ᄒᆞᆫ네
어디마고와패온고 빅일이어두먼다
광풍외놉단효목 오다가비오는ᄃᆡ
쇄더져새우러져 쇄리씨개흐네간다

효복이다죡으면
산쳔이미몰ᄒᆞ고
남디도딸빗ᄒᆞ니
어듸가외탁ᄒᆞ리
다혼자이러헌니
남되도이러헌니
인한을셔다와셔
이되도조록슬허ᄒᆞ라
금뎐자영졔는
아뫼편좃니몰니라
화리지못ᄒᆞ고
박염으로지못ᄒᆞ리라

산쳔이미몰ᄒᆞ면
비금쥬슈들이
혜고다시혜니
뎐디만큼가히업다
어와셰샹은지고
니곤신마자ᄒᆞ고
산쥰의드러안자
일월이하오리니
이히는어디헌고
이달은어디갓ᄂᆞ고
산중의쳑역업셰
쳔마는출니몰비라

맹세 안지 감ᄌᆞᄒᆞ고 사람자문의 ᄀᆡ지ᄌᆞ니
쉬병지 전곤이라 이산곡의 괴뇌소리
호상의 변록ᄒᆞᄂᆡ 왼무의 천감ᄒᆞᄂᆡ
현누비녀 분이요 드록이 새로왜라
ᄯᅢ의 호졌ᄒᆞᄂᆡ 보졈의 춧졌ᄒᆞ고
일신에 안젼ᄒᆞ라 메목의 쳥품ᄒᆞᄂᆡ
말련포의고 우ᄒᆞᆫ을 못너괴에
쳔예장ᄒᆞᆫ을 삼고 홍ᄒᆞᆫ의 구뭔길노
양ᄌᆞ장ᄎᆞᄒᆞᆫ여 쳥산에 너믈에
임의로 도라가셔 젹뎡으로 도라오니
간여만쳡뫼 뎜삭쳔니뫼
쳥풍이 진울ᄒᆞ고 백운이 깁허는ᄃᆡ

지ᄂᆞᆫ 해 여ᄅᆞᆫ빗치
셔왕모 요디상의
희게도 붉히지마요
푸르ᄂᆞᆫ대ᄂᆞᆫ 쳥산이요
흘목의 지혀셔ᄂᆞᆫ
원산을 바라보니
구름속의 날ᄎᆞ즈니
젹흘ᄌᆞ 오랏던가
이밧제 뎨뉘왓셔
이산흘의 날ᄎᆞᄌᆞ리
산흘의 늙은 머ᄅᆞᆫ
오건을 졋제쓰고

산슈병풍 둘너ᄂᆞᆫ듯
푸르게도 희지말고
흰ᄯᅢᄂᆞᆫ 백운이요
붉은ᄯᅢᄂᆞᆫ 낙조로다
거문고 아진 ᄃᆡ희
소리를 늣게 ᄢᅵ고
심화졍이 내뼌
요모왓 허숫로다
머리를 두루혀셔
솔속으로 여허보니
도포를 썰쳐입고
쳥의동ᄌᆞ 젼후로셔ᄂᆞᆫ

잡거니 밀거니 석단의 마조나와
두세번 져오는고나 팔베려 오던네 흔고
올나지 숑츠셕거 연좃로 안즈면셔
청티를 쓰[illegible]치고 잇미는듯 반기는듯
즐거오미 긔지업다 시티도록 반갑던가
초상의 벗맛나네 외롬의 홍소롭문
박비의 가득부어 취토록 먹는후의
잡거니 권흔거니 연〻칠현 금을은
청풍의 셔드러더니 덕〻히 달니로다
의〻헌 산숑쥭을 연간의 먹은뉘가
오열〻 열녀구나 뉘는어어 빠티다 뭇고
금션옥진의 너와지기 고다

쵸괴를맛나시네 산쵸의슌이깁허
진유슈이한참ᄒᆞᆫ졔 셰ᄉᆞ을이져셔네
고량의여왼살씨 잔쵸의볏미엽셔
취쵸ᄒᆞ기의다지거다 쵸식으로의업ᄒᆞᆫ네
몰노쵸벽다던가 삼하의쇄깁게고다
인셰간다셴머리 꼿지자셔입ᄒᆞ자
녹음이어리엿다 간슈는잔ᄒᆞ고
지난깁ᄒᆞᆫ골의 단의의월빅ᄒᆞ고
폐목봉쳡ᄒᆞ니 죵는학이슬피운다
빅운심쳐의 텬ᄒᆞ디형ᄒᆞᆫ네
각우슈지무궁이라 식명허지우슈로다
운진비려ᄒᆞ니 예도쵸커니와

쏘로ᄂᆞᆫ듸 잇나니라
긔약ᄒᆞ고 가사이다
곤륜산 북녁회
셔왕모 찻삼기는
거북타고 가사이다
망ᄋᆞ구 쥬간의
현뎌가 화당이요
송백이 금침이로다

봉니 반쟝 영쥬산의
모리로 가사이다
하회로 가사이다
장근구 발니는
뎡쳐업시 바린몸에
취ᄒᆞᆫ때 몽산의 재니

귀중가

閨中歌 九

이몸에 삼기실제
임을조ᄎᆞ 삼겨시니

삼생의 연분이며
한날만찰 일이로다

나히나소년이요
임ᄒᆞ나날괴실제
이마음이사랑은
견홀디젼혀업셰
평생의원ᄒᆞ온디
ᄒᆞᆫ디예ᄎᆞᄌᆞᄒᆞ엿더니
그덧세어이ᄒᆞᆫ에
박졔ᄒᆞᆫ셔그리는고
엇그졔임을뫼셔
광한젼의올나더니
그덧세무삼일노
하제의나려온고
올졔의비슨머리
허트러진지오래도다
연지분도잇것마는
눌위ᄒᆞ여고이ᄒᆞᆯ고
마음의맺친시름
쳡쳡히ᄊᆞ여셰라
지이는니한숨이요
흘니나니눈물이라
인생이유ᄒᆞᆫᄒᆞᆫ데
수심이그지업다
무정ᄒᆞᆫ셰월은
물흐르듯지나갓다

셕양은 셰그를 나라
가는덧 도라오네
동풍이 건듯부러
젹셜을 햇치는듯
깃득의 낭담 헌되
졉졉은 무삼일고
잇기는듯 반기는듯
고기는 임마조 본듯
임이 너를 보면
무에시 감홍실는고
내뉴는 젹막ᄒᆞ고
슈막이 뮈여셰라

듯거니 보거니
늣길일도 ᄒᆞ도ᄒᆞᆯ샤
옥창의 심은 미화
두세가지 피여셰라
황혼의 명월조ᄎᆞ
침변의 조휘ᄒᆞ니
이미화 한가지로
임계신ᄃᆡ 보니고져
엿자자 셔입니자
녹음의 여린젹의
무용장 거더두고
공작병풍 둘너시니

ᄀᆡ녀의 사름헌듸 히눈여이 기런눈고
원앙금침 쳐너쇠 삼ᄉᆡᆨ실 풀려닉여

금쳐의 견주어셔 임의옷슬 지여닉여
츄풍도 쵸커니와 졔도 갓출세고

황함의 담아두고 임계신듸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흠도 머흠시고

옥누의 혼ᄌᆞ안져 슈졍렴 거든 말이
동년의 달써오고 북극의 별이뵈니

임뵈듯 반가오며 눈물이 졀노난다
쳥광을 쥐여닉여 봉황누의 거러두고

팔황의 다빗최니 심산궁곡의 빗최고져
건곤은 찬식ᄒᆞ고 빅셜이 한빗친듸

사람은커니와
날세도못쳐드러
옥누고쳐야
일너무삼ᄒᆞ리
묘쳠의빗쳔히를
옥누의올니고져
일모쳥산원의
혐가람도험도헐사
쳔등을넘희노고
쳑은덧창을드니
원앙금도참도찰사
이밤이언졔셜고

효상밤방도
치우미의려께도
양초을못쳐너여
인계신이보너고져
홍상을거두치고
취셰를반만버며
져문희겨오재고
긴밤을고효젼간
셤의니임을보려
덕밧치고지혀안자
희로도혈두시요
한딸도삼십일의

할나니 이져시셔 마음의 맺친 시름
시름을 모주준니 골슈의 박혀시니
편작이 열이오나 어와 이내 뺨이여
이내 병 어이허리 이 몸의 탓시로다
찰아리 슈어져셔 꼿지거셔 십난것
범나뷔나 되오리라 녹음이 어린 젹의
꼿마다 단니다가 님은 넌출 모로셔도
님의 옷시 안즈리라 나는 님을 조차단니리라

원부사

怨夫辭 十号

엇그졔 심을 어더 일너보졀 업셔나와
늣게야 셜은 뜻은 부싱 보는젹 공업시

이닉몸길너닐졔 평싱의원ᄒᆞ오듸
공후비필못바라도 군자호구되려더니
삼싱의원슈잇고 장안화류춘의
월하의연분으로 경박자를어더두고
어이몸용심ᄒᆞ면 삼오예갓지너고
살어름드듸는ᄃᆞᆺ 이십이못헐졔뫼
쳔션여질은 너얼골에티도ᄂᆞᆫ
밤다도잇며나와 임은사나뮈오네나
연광이ᄃᆞ면ᄒᆞ고 춘화춘월의
조물조ᄎᆞ세롬받ᄂᆞ 뵈오리의북지ᄂᆞᆫᄃᆞᆺ
이얼골고은티도 칙할얼삼셕도화
대울너여보며나와 여뷔호졉도라볼고

젼생의곱든양ᄌᆞ
엄의눈의보이ᄂᆞᆯ고
쳔누냑사의
신졍을네여두고
빅미곤편을
에티ᄒᆞ메무은고
삼십일이다지ᄂᆞᆫ고
십이월이다진ᄒᆞᆫ후
동지장야긴지장일의
심규홍외독좌ᄒᆞ니
반야오돈의
구름밧발ᄒᆞᆫ터질제

젼일의곱든소리
심의의귀히듯기슬희
월환홀겨워살제
경처업시다니더니
즈일이니긔벨올니
니엘시니사람올가
옥창젼의도화는
몃번이나퓌여눈고
삼경운연의
젹설이하날니고
이러혜고져리혜예
잠어시혼ᄃᆞ안ᄌᆞ

아마도 모ᄌᆞ록춘 도로혀 풀쳐혜ᄂᆞ
못ᄒᆞ여 원슈로다 이리ᄒᆞ여 네ᄃᆡ ᄒᆞ되
녹의홍상 너여 노고 한삼셕ᄃᆡ 너오니
백연화ᄒᆞᆫ 곡조로다 초산쥭션 ᄯᅥᆺ도ᄂᆞᆫ듯
홍운천연의 셜ᄌᆞ욕쥭의
젼연 위 버무ᄂᆞᆫ듯 나로미 맛ᄂᆞᄂᆞᆫ
부용장셕 막현ᄃᆡ 구곡만장이
너귀외 들보샤 구뷔구뷔 셔러ᄂᆞᆫ듯
이르ᄯᅥ니 ᄂᆡ고ᄂᆡ 젼ᄉᆞ직녜 은하슈ᄅᆡ
원망도 허시로다 일년일도 ᄒᆞᆫ번ᄂᆞᆫ
우리님 ᄀᆞ신ᄃᆡᄂᆞᆫ 오ᄅᆞᄂᆞᆫ 못오ᄂᆞ
무삼약슈 ᄀᆞ려ᄂᆞᆫ고 소식조ᄎᆞ 끈허ᄂᆞᆫ고

난간의 지혀셔ᄉᆞ 셕양ᄋᆞᆫ 진현ᄒᆞ니
임가신 ᄃᆡ 바라보니 풀ᄭᅩᆺ헤 이슬맛소
쥭엽 기ᄂᆞᆫ 흔흔ᄒᆞ외 박명이의 뭇혀잇던만
세소리 더욱셥다 발가트니 ᄯᅩ잇ᄂᆞᆫ가
ᄭᅵ도 임의 지위로
살든 간장 다셕어 노라

자미인곡 思美人曲

평ᄉᆡᆼ의 허랑ᄒᆞ여 쳥ᄎᆞᆫ의 잇슬드려
골ᄅᆞᆫ 쥴도 일삼더니 풍월의 벗지되여
일월이 무졍ᄒᆞ니 인ᄉᆡᆼ이 가셕이라
셰월이 깁허셰라 흰박의 ᄯᅳᆺ지잇셰

요슌가인ᄃᆞᆯ
오미의구ᄒᆞᆫ대니
쳔산이예류요는
티모를쇄여잇고
츈츄을반계ᄒᆞ고
명모을흘너쓰며
오셔운깁는곳의
일션녀ᄂᆞ리는둣
여시가ᄯᆞ시온둣
티진이ᄂᆞ리는둣
삼츈의깁히든병
골슈의박혀셰라

셩군실이인은
하ᄂᆞᆯ이아ᄉᆞ기시니
황풍친지간남은
관쳐를도와잇다
호지를드리 니여
향여를흘너니며
무용회뤼온곳의
신월이여리온둣
일신의황흘ᄒᆞᆫ대
반사를니즐소냐
츈유편작현들
이니병어이ᄒᆞ리

누운들잠이오랴 야반잔등의
밤의퇴침이려안즈 쑴이루기어려워라
동풍작야우의 문젼유쟝빗며ᄒᆞᄂᆞᆫ
츈색을져촉ᄒᆞ네 가지〻봄빗치라
금준은쟉며잇고 츈경이〻려ᄒᆞ니
옥졀노비져눈고 아니놀고무엇ᄒᆞ리
인간복득ᄒᆞᆫ쵸변을 동원도리편시츈을
나도잠간알건마는 임은아니모로는가
탁문군의거문고를 남산송ᄇᆡᆨ욱〻로
월노승미조년ᄯᅢ 깁흔만셰자으리라
약슈삼쳔리의 무산십이봉의
쳥조소식끈쳐스니 농운우는져간다

상사동젼긱과로 한월누디월[illegible]를
남의일노우엿더니 나혼자더우셜다
츈제사미화곡을 무엽무월환혼시의
임의일흠삼아두고 한심셕게음녕하니
뉘집의셔옥져소릐 교양한소릐의
슐피부러보니는고 다셰고남은간장
귀현셔다려를 츈풍칠월칠일의
오작교삼아두고 이미티기여려워라
쳥텬의쇠기러기 엽고깁흔옥난한의
이니소식가져다가 님의잠을세오려문
홍련장한셔찰노 쟝암한져문의
쳔니한월못쳐거든 고무여시여려오리

진실노 견케되면
심도회심 ᄒᆞᄂᆞ리라

상사가 相思歌 이

츈야장혜 별운지고
결니상사 더욱셔럽다
약츈삼결 니멈도별다
쳔초초시 산채젓다
상평남북 가뢰오는뢰
독사간장 츈결넙다
장안화류 던초흔뢰
벽미곰편 조비다니

일별낭군 셔난후의
구십츈광 져워ᄯᆞ다
젹막난간 ᄒᆞᆫ곤져혀
부지하쳐 바라보니
낭군념습 풀채너어
낭군심사 신짝ᄒᆞᆫ내
츈미두메다 현ᄒᆞ외
부편곰니로 채두고

쉬산사샹다진ᄒᆞ기의
동연야월밝아온다
박변시쳡ᄆᆞ음일코
독숙공방그려는고
원앙금침잠만드러
몽니샹봉ᄒᆞ쟈ᄒᆞ니
일셩고안버무려셰
누쉬음션ᄭᆡᆺ다가
백만셜올을피우려
쳡ᄋᆞ슉심밧야는듸
쳡한니무궁ᄒᆞ니
사이ᄋᆞ외생대로다

비회챵요일을삼다
쳐ᄋᆞ흑식잠며는듸
다위져박잠못드러
무침한셔우니다가
우겨오동일는밋위
쳬팔잔몽못일ᄋᆞ다
한양션풍지다ᄲᆞᆯ졔
낭군견의젼ᄒᆞ랴ᄆᆞᆫ
홍료박염더욱어여
부용만관ᄀᆞᆫ실는고
이변차사ᄒᆞ다저든
가련쳡쳡너기슈여

신불상쫑 헐자시면
긔실환쳔 치즈소레

만고명장가

萬古名將歌 十二

변산

일곡비가 쳔한누구고
되면소식 분감모근을
도쳬찰사 양군방라
부쳬찰사 관이오요
보국장의 니목시요
미범장의 념파로라
대도호의 니전이요
부도호의 왕민이라

만고명장 흥연하니
외관후씨 스피라
도춍관의 운무거요
부춍관의 악비로다
양우는 죠모사요
사마외는 션무사라
유진장의 누구든고
후영부내 션비라

육군원슈한신이요
뫼원슈의빅괴로다
남쥬작신늬이요
북현무로훙슈다
좌익장의두장슈는
관공과울지경덕이다
편장의는누근ᄒᆞ고
로젹과니초로다
츈칠은션봉이요
여포는후봉되며
졔삼대의육할이요
졔사대의조빈이다

션봉장의왕원이요
후봉장의퇴월이다
동쳥룡의위쳥이요
셔빅호의뎡광이다
우익장의두장슈는
마망과초젼방이다
슈군원슈호빈이요
뫼원슈의오괴로다
졔일대쥬공근다
졔이대육손이다
졔오대의관조의요
졔육대나관필다

좌돌장의 두장슈는
왕젼과 마복파요
촉땅장슈는 누고〻〻
장포과 두예로다
좌반슈의 오한가복이요
우반슈의 평포반초로다
발내셩단 도졔요
도시담의 조자룡이라
칼잘쓰는 네룡이요
범잘잡는 주쳐로다
쇽셰환의 위연이요
눈구진 하후돈이라

우돌장의 두장슈는
악무목 한셰츙이라
그밧긔 슈룩범잠은
몃〻치 맛던고
곽거병 잔룩이요
마눈광등이로다
번쾌는 밤뫼들고
왕촌은 녜를하고
문무비는 주원녜요
지순뎌는 쌍초로다
우악촌근 룩모진은
셔〻치 맛던고

십년싱취 변호비라
유출과ᄆᆡ 진유ᄒᆞ라
노뢰비셩 ᄃᆞᆼ우ᄆᆡ
홍모논어 조뫼로라
변졀의는 ᄆᆞᆫ쳔상ᄉᆡ요
말음양은 최호로라
디장의 감각간라
뫼장의 내총무라
좌돌장의 감력열라
우돌장의 졍기울을
을지문 요용비라
비욱초락 방우강ᄉᆡ라

목멱산은 범바위요
승례향은 요상국이라
견한한은 도간이요
안오현 홍우이라
흥원만 흘ᄌᆞ가ᄯᆡ
동국도 가ᄌᆞ계라
최영으로 션봉삼고
남애오금 우봉삼이
좌변의는 남평열라
우변의는 내지난이라
열자병 ᄯᆞᆨ그하랴
차례로셔 잇ᄂᆞᆫ데

그뒤흔을도라보니 두샹의는쳥텬벽알
홍문구제갈공명이 홍흉의는홍후디의
빅우션손의쥐고 후후도홍한데
사륜거타연후의 도원후퇴여잇셔
병현자호의한데 젼고를한번울데
디군을거러보라 연경을후발부런셔
내관의원비로 미후의쳘삭으로
홍귀를잡아내여 결박한데복지한고
당비의큰소리로 왕연장쳘창으로
후쥐흔여우지우셔 가삼을지르라가
후히의쳘퇴로 현가의드는비후고
텬편그세친후의 목을빈후버혀내데

졀간의농의담이
마로거의시려다가
텬한숏촌의잡고
빅년숏셔스리라
티묘의드려가셔
고사셩공ᄒ온ᄒ에
아마도숏곳산외
그ᄃᆞᆯ슐허ᄀ노라

춘면곡

春眠曲 十四

춘면을느지셰야
죽창을반기ᄒ고
뎡화는작작ᄒ여
가는나뷔머무는듯
연유는외ᄀᄒ여
션뀐니를셕여세라
창밧긔덜괸술을
이삼빅먹은ᄒ외
호탕코미친흥을
부졀업시자아니여
빅마금편으로
야유원ᄎ자가니

희한흔 숨의 ᄒᆞ고 광괵연 듯 취계 번듯
갈빗츤 솔왜가득 헌듸 흥을 계워 버무는 듯
비회고 면ᄒᆞᆫ데 시창을 반긔ᄒᆞ고
우젼에 섯노라니 옥안을 잠깐드례
웃는 듯 씽기는 듯 홍안을 삼홍ᄒᆞ고
고뒤ᄒᆞ며 ᄭᅡ즈드려 녹과ᄅᆞᆷ 빗기산고
청가한곡 흐르드 운우양ᄃᆡ 상의
홍의를 잔이너니 효몽이 다젼ᄒᆞᆫ다
사랑도 리지엽고 이사랑이 연분을
연분도 깁흘시고 비할데 젼혀업다
너는 홍에 옷치되고 삼홍이 다진도록
나는 홍에나 비되여 셔나사 지ᄭᅡ지리니

인간의 얼이 만고 신령이 미흡허여
흐믈흐찬 세음발다 의다롤 올니별이야
청강의 노는 원앙 광풍의 놀난 호졉
우려예 고셔다는 듯 가다가 돌치는 듯
석양은 다져가고 다삼을 비여잡고
가는 말은 자곱ᄃᆞ굴제 암연이 여왼ᄒᆞᆫ위
엇그졔 이월쏫치 그ᄯᅢ셰 ᄒᆞᆯᄒᆞᆯᄒᆞᆫ데
녹양변의 붉허어더니 낙엽이 흣날이라
시벽달 지실젹의 반가온 임의소식
외기러기 우러예니 힝혀올가 바랏더니
창망헌 구름밧긔 지리ᄒᆞᆫ데ᄒᆞ 뻘은을
뷘소리 생내로다 언제 만나 다시볼고

산두의편운되여
임의낫처비최고져
옥상초량의
졔비되야날고지고
화산이평지되고
첨강이ᄯᅡ마른ᄯᅡ
셔호의유뎌한말
나도잠간드러더니
디장부의공명을
일노조차말나그른ᄯᅡ

젹상의오동되여
임의무릅베오고져
옥창잉도화의
나븨되야날니고져
평싱의슬푼회포
어디롤가ᄌᆞᄒᆞᆫ데
마음듬못쳐벽고
방긔헌맘ᄯᅡ지니여

장자별곡

相思別曲 十四

오

인간니별만사즁의 셩ᄉᆞ의ᄒᆡ결노지고
독숙공방더욱셜다 히다져셔겸은날이
상ᄉᆞ불견이닉진졍 이런져런흣트근심
그뉘알니미친지금 다누구채더져두고
벗고싱고〻〻벗고 자나세나〻〻자나
먹고굼고〻〻먹고 임못보면가슴답〻
어런양자고은소리 보고지고임의얼골
눈의암〻귀의잿〻 듯고지고임의소리
하나님계비나니다 젼싱ᄎᆞ신무삼죄로
이졔보계삼기오셔 우리두리삼겨나셔
그런상ᄉᆞ한디만나 죽지말고한디셔
이별마ᄌᆞ빅년기약 잇지마자쳐음밍세

쳔금쥬옥귀밧기요
셰상실부관계ᄒᆞ랴
사랑되혀되히되면
놉고〻다시놉다
쵸믈이시오난지
귀신이회젓ᄂᆞᆫ지
오날이나드러올가
너일이나과별올가
오ᄂᆞᆯ쥬야달밝으되
밤은어이더듸션고
이너마음아라시면
임도날을싱각는가

곤원흥네물이되옵
깁고〻다지깁다
문허질줄모로거든
셤어질줄여이알니
일조낭군이별ᄒᆞᆫ뒤
소식조차돈졀ᄒᆞ다
일월무정졀로가니
운발홍안표비회다
녹음방초저믄날의
흰눈어이더듸가노
뷘방안의혼자안자
한심으로벗슬삼아

실흔 간장 구뷔〃〃 우던 눈물 바다 되면
꾀여 내면 가슴 답〃 비드러고 가련만은
꾀는 꿀이〃 련나면 사랑겨워 우든 우름
임의 옷셰 당리리라 생각ᄒᆞ면 목이 메고
고티ᄒᆞ여 웃든 우슴 지쳑 동셔 쳔니 되여
혀여 보니 더욱 셜다 도라 보니 눈이 시고
발이 샹사 고려닌들 날개 돗친 학이 되면
한 붓스로 다 그리랴 나라가셔 보련마는
산은 어이 고기 지고 텬디 인간 이별 즁의
물은 어이 사시 진고 날 갓튼 이 쏘 잇는가
너을 갓튼 미인성이 바람 부러 구즌 비와
무삼 실노 참여는가 구름 졔여 저문 밤의

나며들며 뷘방안의 일가젼디 바라보니
오락가락 혼자셔라 이니상ᄉᆞ 허셰로다
공방미인 독샹ᄉᆞ는 나혼ᄌᆞ 이러헌가
녜로부터 이러헌가 님도맛치 이러헌가
나를사랑 ᄒᆞ든못헌 무졍ᄒᆞ여 셔져는가
남만사랑 ᄒᆞ시든가 유졍ᄒᆞ셰 그리는가
산鷄(계)야목 길을드려 노류쟝화 셕거쥐고
노ᄒᆞᆫ줄을 모로는가 혼셔ᄂᆞᆯ 노니는가
가는셤이 ᄌᆞ최되면 한번흔어드러 가면
오는길리 물이되리 다시 오기어려워라
실노옛졍 이ᄌᆞ시면
다시보미 삼기쇼셔

자여승가 思女僧歌

어와보완지고 반갑괴도리지업고
져션사보완재고 깃부기도측량업네
여자의교용으로 져러틋고은양자
남자복색무삼일고 헌누비의씨힌거동
십오야밝은달네 납설춘동백화는
셰구름의쏘혀는디 늘고도양과걸녀는듯
디모단측도리를 초련목힛곡얄을
어이흐여마다흐고 굴셰누뻬쎼잇느고
운존흡판흘을 절나도셰디색맛
무삼일노마다흐고 잘계며러쎄잇스며

육회 홍상 늣어 준을 추포 속닷 상곡 바지
어이 한여 슬잇 한고 열어시 세여 는고
베단 당혜 어더 두고 칠보 죄옥 어더 두고
육날 로혜 신어 는고 빅팔 염주 메여 는고
십이 운발 어디 가고 용포의 곱고 밉에
돌속 박어 되여 는고 치장으로 가례 하는
져회 용결 노는 너 갓득의 보희 양즈
긔이 며 앙가 온가 ○ 반면 셰굴 올너 고져
도회 맛든 불히 은엽의 십팔 춘월 괴탄은
연지 빗츨 도치 고져 져귀 미히 결너 고져
팔즈 청산 춘광으로 여운 녹발 길너 녀셔
젹는 셥지 이고져 월하 순발 사미 고져

옥용잠금봉치로 셕우황진쥬르심
삽단장 삭미고쳐 뒤혀ᄋᆞᆯ니고져ᄂᆞ
홋장삼 췌데 폭의 가믄은단못지마쇼
슉풍도표ᄒᆞ시고 반호ᄒᆞ여쇠고믈셰
디연ᄒᆞ여도는지거든 착ᄒᆞ고어진배필
위연위실고이허라 깔희고ᄀᆞᆺ쳐골나
활작ᄡᅩ고글잘ᄒᆞ는 승변을발셔듯고
양반셔방ᄆᆡᆺ치고져 한번구경ᄒᆞ쟈더니
변련이 [illegible]을산지 월하의연분인지
귀신이감동턴지 잔싱의연옥련지
두미월졔 졉은길의 홋ᄯᅩ를보낼젹의
남ᄀᆞ넘셔울대반나 눈의가시되단말가

관ᄂᆡ로 참졔건너 이에이 가ᄂᆞᆫ길에
밧장고 밧도라들졔 남북으로 갈녀놋고
셤ᄉᆞ옥ᄉᆞ로 ○ 간ᄉᆞ을 반긔ᄒᆞ고
삼졀ᄉᆞ장ᄉᆡ무르고 호치를드려닉여
가ᄂᆞᆫ목쳥겨우여러 평안이ᄒᆞᆫ차ᄒᆞᆫ오
ᄒᆞᆫ직을고혈젹의 후일다시보자ᄉᆡ다
발혀잡고도라보니 이젼의ᄃᆞᆫ든발이
가삼의불이난다 에이그러져도던고
다시금도라보니 훗교의우ᄂᆞᆫ셔ᄂᆞᆫ
ᄒᆞᆫ업ᄉᆞᆫ졍이로다 만장을ᄇᆡ이ᄂᆞᆫ듯
장졔의부른풀ᄃᆞᆫ 에킨듯취헌듯
별ᄂᆞ를벅음ᄃᆞᆫ듯 발졔셜녀도라보니

호강ᄒᆞ야 젹막헌듸
ᄒᆞᆫ미ᄒᆞᆫ 셕거다가
셤기깁도 험도헐사
잠박거 심으고져
ᄇᆡᆨ연화 옴겨다가
쑴의는 만ᄂᆡ보되
육곡난간 지고져
잠곳셰변 허사로다
못보와 병이되고
인간의 고은졔집
못이져 원ᄒᆞ고나
너뿐이라 ᄒᆞ랴마는
켜ᄯᅡ복의 잇셔
셰상의 빗들담자
우리눈의 ᄯᅡ를ᄒᆞ야
ᄂᆡ뿐이라 ᄒᆞ랴마는
문무겸젼 호걸이야
구곡만장 ᄯᅡ셕ᄒᆞ니
ᄂᆡ밧긔 ᄯᅩ잇ᄂᆞᆫ가
복ᄒᆞᆷ연들 보젼ᄒᆞ랴
약ᄒᆞᆫ삼쳘 ᄂᆡ의
한잠잔 누예비단
쳥호를며 ᄒᆞ여더
헛틀실 갓틀시쳘

일폭화젼지의 힝인심발의
셰〃셜연ᄒᆞ여 다시보고젼헌ᄯᅳ이
쇄챵의ᄒᆡ지도록 답셔는커니와
쵸식을기ᄃᆞ리니 ᄉᆞ짓지나아니던가
무졍도ᄒᆞ여잇고 홀ᄌᆞ운벽못울ᄯᅢ는
야속도ᄒᆞ온지고 뎃말을드러더니
짝사랑의외쥴기는 셜ᄉᆞ남혜여보쇼
날울두고ᄯᅥ고ᄂᆞᆫ말이 이너아니가련턴가
우연이만나보고 이져셔누니잇신고
무죄이쥭게되네 불상도안니헌가
못보아못살기네 자비션ᄉᆞ마음곳쳐
한번보기발원ᄒᆞᆫ네 너한몸살녀니쇼

답승가

答僧歌 十七号

너와고니신고
영화호걸아니신가
무심이가는춘을
반기는무삼일고
켜되도록눈의드려
병환조치드러는고
삭발위승춘이되여
세렴을설쳐시니
옥찬밥인도화는
뢰는뭇지는고나

네얼골언제보께
비실홈언제들어
베리싹곤승의얼굴
더고운되여다완디
너버여여힌두와
셜운마음둘데업서
추월춘풍이
몃번이나지나간고
광음을혜작지면
삼칠이전연실서

요조숙녀 다니여든 도요방년 느져시니
군자호구 어이되며 표미시를 읊헐손가
음식다 잠자리의 초년풍도 고은쉬방
남의살맛 모로거든 싱의다 싱각헐가
달밝회져 편의셔 살셨지 이편의셔
양반보고 결혼기와 셔날렴외 한직이뿐
니몸이 늙선고로 한로셜동 한다기
늙의한실 아니헐가 그아니 연분인가
마음의 품은회포 홀연이 별한고
잇던지 업던지 몰랑으로 도라오니
셥셥헌 이너마음 숙맥은 살뫼려고
년년한번 대즈말이 목을듯고 싱각한네

심신이산란ᄒᆞ여
빨이조차쇠쳐진다
몰상터라ᄒᆞ신님하
이미헌들어이헐고
저질이노도커든
남의식양되여살가
날갓튼인생을
셕작도마르쇼셔
인병이지텬커든
너어이살녀닐고
몰관헌흉의몸을
더러이녀기시고

어두헌마음의
살월딸샵바시엽다
세련이미진ᄒᆞ야
환속을ᄒᆞ올진대
미쳔헌인사로서
쳡의한살어이헐고
의술을모르거든
남의병을어이헐고
쳔금갓든귀헌몸을
무졀업시허비마쇼
흉안몰변을
아시어되구ᄒᆞ소셔

紀元檀紀四二八一年七月　日　改表衣詁

李華堂題